

강진군, 세상에 하나뿐인 '하멜존 커피' 보급 나서

관내 카페 10개소 모집...오는 12일까지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 대상자 확정시 로고·가격표 제공 6월부터 판매 가능

강진군이 하멜존 커피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진군은 지난해 개발한 '하멜존 커피'를 관내 카페에 보급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하멜존 커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육성 및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관내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는 카페면 신청 가능하다. 강진군은 지난 4월 특허청에 하멜존 커피 상표 등록을 완료했고, 커피 판매를 위한 필수 요건인 '식품제조등록'도 완료한 상태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하멜존 커피 로고와 가격표를 제공 받아 오는 6월부터 커피와 드립백을 판매할 수 있다. 하멜존 커피는 은은하게 올라오는 산미에 깊은 고소함이 특징이며,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평을 받고 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은 "하멜존 커피는 강진에서 아삭하게 개발한 커피로 오직 강진에서만 맛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강진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식품위생팀(☎061-430-3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430-3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제51회 강진청자축제와 제21회 전라병영성축제 등에서 선보인 하멜존 커피는 연일 조기 매진됐을 만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개최

5월 5일부터 이틀간 풍성한 즐길거리

진도군이 오는 5월 5일부터 6일까지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군은 5월 3일 진도개의 날을 맞아 진도읍 동외리 진도개테마파크에서 반려견과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만큼 진도개와 반려견이 함께 즐기고,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5일 개막 행사로는 사직연산과 프리스타일 등 반려견 시범과 마술쇼, 버튼식 축포 등의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반려견 행사는 ▲어릴리티와 달리기 등 진도개 독(dog) 스포츠 ▲인명구조, 프리스타일, 프리스비, 사직연산 등 반려견 시범행사 ▲점핑릴레이, 파워디스크 등 독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반려견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총 27가지의 참여·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질라인 등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운영 ▲어린이 페이스 페인팅 ▲어린이 낚시·비눗방울 체험 ▲어린이 패들보드·탐승형 로봇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려견과의 교감·교육 체험과 반려견의 기본 관리법을 알려주는 미용 체험, 반려견 수영장 교육, 진도개와 반려견 OX퀴즈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반려견 10m 달리기 ▲진도개 가방·공예품 만들기 ▲반려견 아로마 만들기 ▲반려견 미용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진도개가 뛰노는 진돌이 놀이터와 토끼, 미어캣, 공작새 등이 있는 미니동물농장, 야생화와 다육식물 등이 전시된 아리랑식물원 관람과 행사장 곳곳에 휴게공간도 마련돼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진도개 페스티벌에는 전국 7개 대학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의 참여로 행사를 진행,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4년만에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을 위해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행사를 찾은 반려동물과 관광객 모두의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철쭉 보고 키조개 맛보고" 연휴 풍성

4~7일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5일 장흥 제암산 철쭉제

장흥군이 주말 연휴를 맞아 제암산 철쭉제와 키조개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키조개축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안양면 수문항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갯벌 생태체험, 바지락 캐기, 키조개 까기·씻기 대회, 키조개 생태관찰, 만들기 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운영한다. 사진전, 공예품 전시, 풍선아트, 나도 가수다, 팔씨름 대회 등 관광객들을 위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축제기간 매일 오후 6시 메인 무대에서는 초대가수 공연 '열린무대'가 펼쳐진다.

특량만 키조개는 5월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차고, 맛과 영양이 풍부해 진다. 장흥 키조개의 주산지인 안양면 앞 바다는 다양한 미생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개펄과 모래가 섞여 있어 키조개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키조개는 그 자체로도 담백함이 일품이지만, 한우삼합, 전, 탕수육, 회무침, 죽 등 다양한 요리로도 맛볼 수 있다.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찾으면 다양한 키조개 요리와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키조개축제가 한창인 5일에는 제암산 철쭉평원에서 제33회 장흥 제암산철쭉제가 열린다. 제암산 철쭉평원에는 30년 이상된 철쭉이 100만㎡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매년 5월이면 6km 길이의 이 철쭉평원은 연분홍빛으로 물든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이순신 기념관 개관' 역사·문화 관광지 발돋움

완도군은 지난 4월 28일 '이순신 기념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기념관(고금면 덕동리 578번지) 앞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내외빈과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금 상정 농악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커팅식, 기념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순신 기념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수군 본영이 설치됐던 역사적인 공간인 묘당도의 가치를 알리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 공원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이순신 장군의 완도와 고금도에서의 활동을 선양하고자 건립됐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건축 35억, 전시 15억)이 투입됐으며, 1층에는 기획 전시관, 영상관,

사무실, 체험 공간이, 2층에는 상설 전시관이 마련됐다.

기획 전시관에는 개관 기념으로 1598년 위태로운 조선을 구하기 위해 결성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 수군에 대한 활동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다.

영상관에서는 '이순신, 나라를 구한 불패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고금도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고금도 해전과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전투 장면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상설 전시관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상을 재조명하는 '이순신 관'으로 고금도를 중심으로 전시 내용을 구성·연출하여 타지역 이순신 기념관과의 차별화를 두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